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77

사자굴에 갇힌 다니엘

(다니엘 6장~12장)



세월이 흘러, ‘메대’ 왕국에서 온 ‘다리오’라는 사람이
바빌로니아 왕국을 차지하고 새 왕이 되었어요.
다리오 왕은 낯선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
120명의 관리를 뽑아서
나라 곳곳을 통치하게 하기로 했죠.

그리고 그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
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된 다니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.

“다니엘은 이 나라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.
고로,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‘첫 번째 총리’로 임명할 것이니
다니엘은 이 나라 전체의 일을 맡게 될 것이다.”

왕의 명령에,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
120명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.

“다니엘이 나라일을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나
결국 남유다 포로 출신 아니요?
그런 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
차지해서야 되겠습니까?”

“안 될 일이지요.
어떻게든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서
총리에서 끌어내야 합니다!”

**그들은 다니엘을 계속 지켜봤어요.
무슨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곧장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였죠.**

**하지만 충성스럽고 현명한 다니엘에게선
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.
그래서 관리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계락을 꾸며냈죠.**

**“다리오 왕이시여, 만수무강하시옵소서.
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.”**

“말해 보라.”

**“이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왕이시고
그 사실을 세상에 확실히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헤헤.
그래서 이 나라엔 법이 한 가지 필요하옵니다.
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
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 말입니다!
어떠신지요?”**

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
이 법이 마음에 들었어요.
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에 찬성하고
온 나라에 새 법을 선포했죠.

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이 곤란에 빠질 거라곤.
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!
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자기 집 다락방에
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.

새 법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
●●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 포기할 순 없었죠.
그리고 다니엘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는 모습을
관리들이 보게 되었어요.

**“왕이시여! 남유다 출신 다니엘이 왕께서
직접 도장까지 찍으신 새 법을 무시하였습니다!
하루도 바빴없이 매일 세 번씩이나
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가요.”**

**그 말을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어요!
다니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
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
그럴 때마다 신하들이 몰려와서 말했죠.**

**“왕께서 법을 선포한 이상, 그걸 도로 무를 순 없습니다.
그게 이 나라 법입니다!”**

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붙잡아
사자 굴 안에 집어넣게 했어요.
끓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아주 깊은 굴이었죠.
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기 전
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.

**“네가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
이 너를 구해주실 거라 믿는다.”**

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고.
커다란 돌 하나가 입구를 막았어요.
왕은 그 돌에 도장을 찍어서
아무도 왕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게 했죠.

그저 안쪽에서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.
그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도 걱정돼서
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.

이튿날 아침, 다리오 왕은 동이 트자마자
사자 굴로 향했어요.
그리고 굴 입구에 얼굴을 갖다 대고
큰 소리로 외쳤죠.

**“다니엘, 다니엘!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
구해주신 것이냐? 대답해 보거라!”**

왕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고.
몇 초가 지났어요.
그렇게 모두가 긴장감 속에 숨 죽이고 있을 때

**“왕이시여, 만수무강 하십시오.
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
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.
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
잘 알고 계시니까요.”**

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.

**“오... 다니엘이 정말 살아있구나!
여보라, 지금 당장 다니엘을 꺼내주거라!”**

신하들이 다니엘을 꺼내 보니
정말 다니엘의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었어요.

이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었고
누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죠.

**“저 사자들이 많이 굶주린 것 같구나.
듣거라, 앞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을 잡아 와서,
사자 굴 안에 대신 집어넣거라!”**

자신들이 낸 꾀에 만족해하던 신하들이
사자 밥 신세가 되는 데에는
이렇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.
젊은 시절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다니엘은
그렇게 평생 동안 왕들을 도와 백성들을 통치했어요.

하지만 단 한 순간도, 고향 남유다 땅을 잊지 않았죠.

**‘주님, 우리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
도와주시옵소서.**

**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
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.
그날이 찾아올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.’**

매일 유대인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
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헤아리고 계셨어요.
그래서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에게
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죠.

또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는 이방 나라 왕들이
하나님을 존경하게끔 만드셨어요.

그리고 마침내, 그날이 찾아왔죠!

세계에서 가장 거대한..
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바빌로니아 마저
차지하게 됐고, 고레스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린거죠.

**“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
그리고 이제 내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
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
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하거라!”**

“세상에... 우리가 해방이 되다니...”

“고레스 왕 만세! 고레스 왕 만세!!”

모든 유대인들이, 꾹충꾹충 뛰며 기뻐했어요.
70년 동안 이어진 포로생활을 마치고
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깐요!
이 모든 게,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
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어요.

그렇게 수만 명의 유대인 백성들이 모여 고향으로
돌아가는 모습을 본 이후에
다니엘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쳤답니다!